

커쇼의 200승 달성이 더욱 대단한 이유



▲ 클레이튼 커쇼의 개인 통산 200승을 축하하는 다저스 SNS, 사진=twitter(dodgers)

LA 다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클레이튼 커쇼가 메이저리그에서 개인 통산 200승을 달성했다.

'OSEN'에 따르면 커쇼는 18일 LA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홈 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해 7이닝 동안 3피안타 무사사구 9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다저스의 5-0 승리. 이로써 커쇼는 시즌 3승(1패)과 함께 개인 통산 200승을 달성했다. 커쇼는 통산 405경기에서 200승 88패를 기록했다.

CBS스포츠는 "커쇼는 최소 100패 없이 통산 200승을 달성한 투수에 6번째로 합류했다."며 "당연하게도 다른 5명의 투수는 이미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커쇼도 명예의 전당으로 향하고 있다. 은퇴 후 5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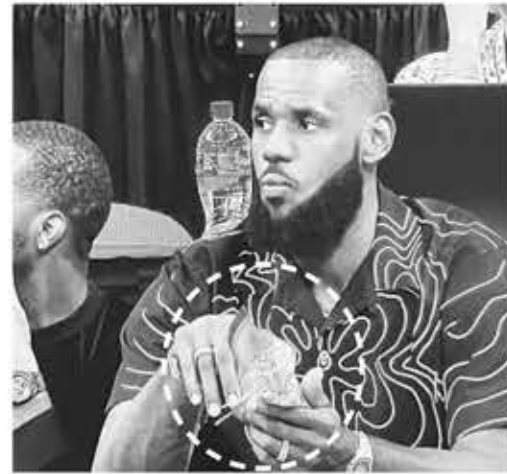
메이저리그에서 개인 통산 200승은 커쇼가 121번째 기록이다. 그런데 100패 미만으로 200승 고지에 오른 투수는 커쇼가 역대 6번째다. 더구나 200승 달성 시점에서 커쇼의 88패 보다 패수가 더 적은 투수는 포드와 그루브 단 2명뿐이었다. 커쇼는 이들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패배로 200승 고지에 올랐다.

MLB.com은 "커쇼의 통산 승률 .694는 화이트 포드(.690)보다 앞선다. 200승 이상 투수 중 현대 시대에 최고의 투수다."고 추켜세웠다.

NBA 최고 잔돌이 억만장자 제임스

트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는 챔피언 4회, MVP 4회, 올스타 19회의 기록을 갖고 있는 미국프로농구(NBA) 최고의 현역 선수다. 그는 골약대 최고 연봉을 받는 NBA 선수가 된다. 억만장자이기도 하다.

제임스는 최근 레이커스와 2년 9,700만 달러에 계약했다. 2024-25년에 5,0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코트 밖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하지만 지독한 '잔돌이'다.



▲ NBA 리스베가스 썸머리그에서 집에서 가져온 땅콩을 먹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 사진=twitter(마이크 비질)

19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제임스는 Wi-Fi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는 데이터 로밍을 켜지 않

고, 앱도 구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임스는 또 한때 마이애미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기장에 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가장 최근에는 트위터가 실시 중인 유료 인증표시 비용 8달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제임스는 자선 활동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다. 제임스는 지난 2019년 고향 오하이오주 아크론에 '아이 프라미스 스쿨' (I promise school)을 설립했다. 약 35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이 학교는 등록금이 전액 무료다. 전교생에게 뷔페식 아침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한다.

3루타 치고 2시간 뒤 터치다운 패스한 대학 선수

1980년대 메이저리그(MLB)와 북미프로풋볼(NFL)서 모두 올스타에 뽑혔던 보 잭슨, 1990년대 MLB 월드시리즈와 NFL 슈퍼볼에 출전한 다온 샌더스, 이들은 모두 MLB와 NFL에서 동시에 이름을 남긴 전설적인 선수다. 그런데 이들도 못 해본 일을 달성한 대학 선수가 등장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학생인 존 리스 플럼리는 14일 오후 5시에 시작한 멤피스대학교와의 야구경기에 9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다. 3회 플럼리가 친 2타점 3루타는 이날 12-3으로 승리한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의 결승 타점이었다.



▲ 풋볼과 야구에서 활약 중인 미국 대학 선수 존 리스 플럼리, 사진=twitter(존 리스 플럼리)

플럼리는 10-3으로 점수가 벌어진 7회, 골프 카트에 몸을 실었다. 오후 7시 30분 시작하는 센트럴플로리다대학교 풋볼팀 UCF 나이즈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다. 그는 7분 후 풋볼 경기장에 도착해 풋볼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경기에 나서 터치다운 패스 2개를 비롯해 230패싱야드로 활약했다.

플럼리가 야구 경기에서 3루타를 친 시간은 오후 6시 14분이었고, 첫 번째 터치다운 패스에 성공한 건 오후 8시 38분이다. 3루타를 치고 2시간여 만에 터치다운을 올린 것이다.

플럼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하루에 두 경기를) 뛰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계 기록이 될 것이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